

지금이야말로 해외주식형펀드에 투자할 때라고 전해라~

국내 세제 혜택과 글로벌 경제 환경을 보면, 지금은 해외펀드에 주목할 때이다. 해외펀드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배경과 해외펀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자.



박현식

KEB하나은행
투자상품서비스부 포트폴리오 매니저
hs.park@hanafn.com

- ▶ **학력·자격증**
성균관대 경영전문대학원 금융학 석사
CFA, FRM, 美감정평가사, 투자자산운용사
- ▶ **경력**
삼성생명 자문그룹 이코노미스트
- ▶ **현재 활동**
KEB하나은행 포트폴리오 매니저
글로벌 매크로 및 국내 주식시장 분석

점점 커지는 해외주식형펀드의 매력

작년 11월 중국의 광군제가 세계 최대 쇼핑 이벤트로 떠오르면서 국내 직구족들도 이를 놓칠세라 컴퓨터 앞에 앉아 중화권 득템을 노리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이처럼 점점 뜨거워지는 해외 소비 트렌드는 금융 상품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최근 몇 년 사이 금융 상품 투자대상이 국내에서 해외로 넓어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정부는 해외주식펀드 비과세 제도 시행을 준비 중이다. 이는 해외주식을 60% 이상 편입한 펀드의 매매·평가차익과 환차익에 대해 납입한도 3,000만원 한도 내에서 10년간 비과세해주는 제도이다.



2016년 글로벌 경제환경의 중심에는 선진국이 자리 잡고 있다. 첫 번째 금리인상 시행 이후 두 번째 금리인상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 미국이 특히 주목된다. 금리인상에 나설 정도로 개선되고 있는 미국 경제가 부각되고, 유로존과 일본의 추가 완화 정책이 기대되면서 선진국에 대한 상대적인 투자매력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기준금리인상 이후 그동안 선진국의 저금리 정책을 바탕으로 신흥국으로 흘러 들어갔던 자금들이 선진국으로 회귀하면서 신흥국 통화 약세와 금융시장 변동성을 높이고 있는 부문은 우려된다. 하지만 달러화 강세로 인해 미국 기업들의 해외부문 수익이 줄어드는 등 금리인상 이후 나타나는 폐해도 만만치 않아, 연준은 매우 점진적인 속도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펀드시장 상황은 전체적으로 채권형보다 주식형을 선호하는 자산 포트폴리오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주식형 자산군 내에서는 신흥국 대비 선진국의 상대적 우위가 지속될 전망이다.

우선 미국을 살펴보면, 연말로 예정된 대선을 앞두고 레임덕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 이슬람국가(IS) 격퇴와 관련된 지상군 투입을 둘러싼 논란 등 몇 가지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여기에 금융위기 이후 주식시장의 밸리가 장기간 이어져 온 점도 부담이다. 과일 뒤에는 거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 밸리를 진행했다는 것만으로 내년 시장을 비판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일단 미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고용 및 소비 개선세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택 가격 강세로 자산효과가 기대되며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역시 시장의 기대처럼 빠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국 경기의 확장국면은 연장될 수 있어 보인다.

유럽은 양적완화를 발판으로 성장의 불씨를 살리고 있다. 양적완화 이후 대외수요가 부진한 수출보다 내수 중심의 회복 기조를 보이고 있다. 저유가에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면서 금융위기 이후 침체되었던 소비수요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의 재정확대와 유럽중앙은행(ECB)의 추가적인 양적완화로 경기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살아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흥국의 펀드멘털이 취약한 가운데 글로벌 경제 성

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선불리 낙관론을 펴기 어려운 여건이다. 미국의 출구전략에서 비롯된 시장의 불확실성은 쉽게 예단하기 어렵지만 글로벌 경제가 심각한 침체를 경험할 확률은 작아 보인다. 연준이 경기와 눈치보기를 통해 스스로의 속도위반을 경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럽중앙은행(ECB) 및 일본중앙은행(BOJ)은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통해 미국의 유동성 축소를 상쇄시켜 나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분간은 경기회복과 추가 정책 수단을 보유한 선진국이 우월해 보이며, 미래의 어느 시점에 강달러가 완화된다면 원자재 가격 상승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신흥국도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해외 선진주식시장의 투자여건이 상대적으로 밝은 상황에서 비과세 혜택까지 준다고 하니 해외주식형펀드가 어찌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해외주식형펀드의 매력은 묵힐수록 더 빛난다

우측 그림은 주요 해외주가지수에 투자했을 경우, 보유기간별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이다. 이 분석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시간 지평(time horizon)'을 넓힐수록 일관된 평균 수익률을 보인다. 1년 수익률의 경우, 어떤 해에는 50% 가까운 수익이 났는가 하면 반대로 30%의 손실을 입기도 했다. 한 마디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청개구리 같다. 하지만 시간 지평을 3년으로 넓혀 보면 매우 일관된 평균 수익률이 나타난다. 3년 단위로 보유기간을 넓히면 손실 볼 확률이 한자리 수로 떨어지고, 대부분의 기간에서 연 수익률이 10%대 수준이 된다. 이렇듯 시간 지평을 넓히면 넓힐수록 수익률의 일관성은 더욱 증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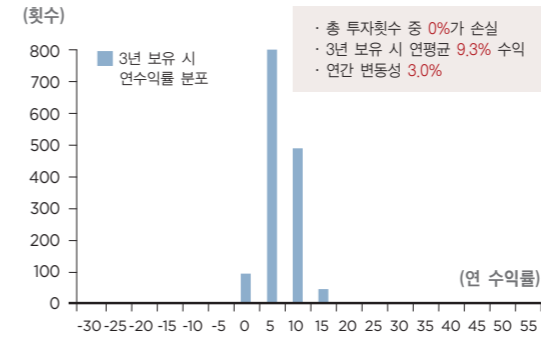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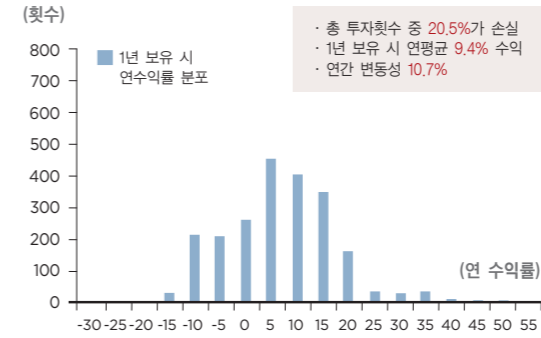
투자자들이 지금 당장 수익률에 목숨 걸지 않고 좋은 해외주식형펀드를 잘 골라서 5년, 아니 단 3년 정도 만이라도 보유한다면, 주식시장의 변동스러운은 사라지고 일관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불안한 모습을 보여왔던 신흥국 주식투자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논리다. 올해 2월 말부터 시행될 해외주식펀드 비과세 제도를 활용해 해외주식형펀드의 매력에 빠져보자. **ㅎ**

“
펀드시장 상황은 전체적으로 채권형보다 주식형을 선호하는 자산 포트폴리오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주식형 자산군 내에서는 신흥국 대비 선진국의 상대적 우위가 지속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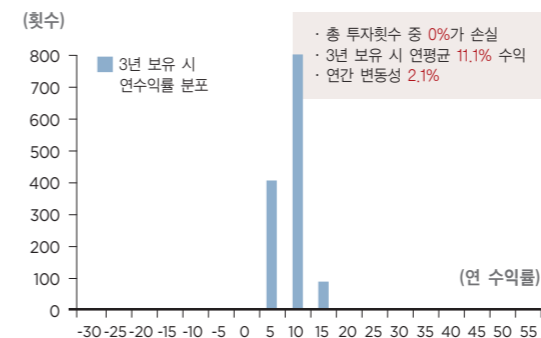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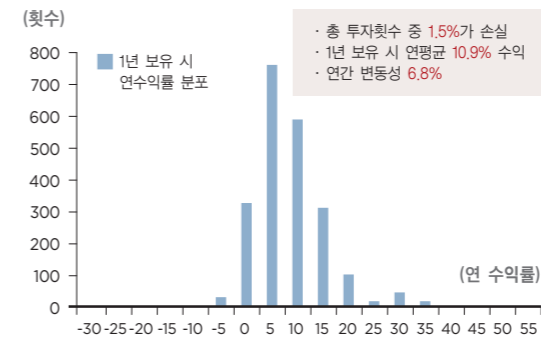
Summary

- ① 해외주식펀드 비과세 제도를 활용해 경기 상승 모멘텀과 정책적 기대감이 존재하는 선진국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자.
- ② 과도하지 않은, 적당한 변동성이 있는 선진국 주식형 펀드의 '시간 지평(time horizon)'을 넓혀서 일관되고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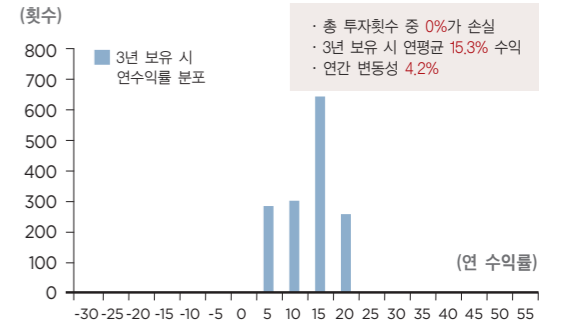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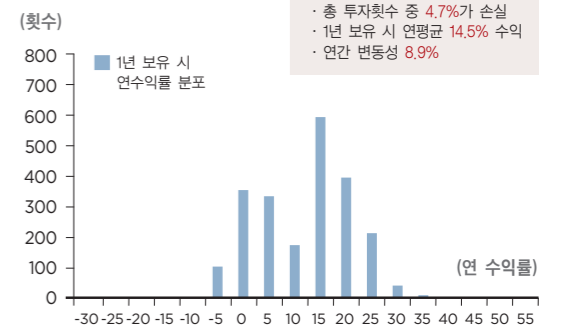
선진국 주가지수의 보유기간별 수익률 분포



글로벌 필수소비재 지수의 보유기간별 수익률 분포



글로벌 헬스케어 주가지수의 보유기간별 수익률 분포



신흥국 주가지수의 보유기간별 수익률 분포

